

學校保健의 發展을 바람

한 정 수

해원 여자고등학교

학교인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학교보건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담임교사와 양호교사이다. 그러므로 학교보건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호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켜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건강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학교보건의 존재하는 것과 같이 양호교사도 학생들과 더불어 학생들이 훌륭한 건강사회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다. 양호교사로서 학생들의 건강과 지역사회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선 첫째, 학생들의 Health need를 파악해야 될 것이다. 양호교사로서 학생들의 Health need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과목 교사들은 매 수업에 들어가 학생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 학생들이 생각하는 건강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학생의 안색, 행동, 태도 등으로 그 학생의 건강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양호교사는 건강한 학생보다는 아픈 학생을 대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이전의 학생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이미 나타난 학생을 대하므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건강학생들과의 접촉이 다른 과목 교사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Health need를 빨리, 그리고 쉽게 파악할 수가 없다. 양호교사는 아픈 학생이나 허약한 학생들과 건강상담을 하고 응급처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학생의 건강상담이나 넓은 접촉, 원만한 인간관계가 더욱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양호교사도 양

호실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건강한 학생들이 있는 곳에서 학생들과 같이 대화하고 관찰하는 동안에 어느 학생이 어느 면에서 건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양호교사는 교육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야 하겠다. 어린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물론이거니와 어른인 교직원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인들도 가르칠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요즘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입학시험을 앞두고 생기는 불면증이나 심한 두통, 소화불량 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러한 고등학교 3학년이 겪는 진통은 해를 더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 이러한 고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정신 위생에 대한 교육도 학교보건의 발전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양호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아픈 학생들이 충분한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학생전체에게 양호실을 개방하여 건강상담의 장소로 적극 이용하여 과거의 좋지 않은 양호실의 개념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호교사로서 해야 할 일들이 그외에도 많지만 마지막으로 보건교육이 양호교사의 역할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교육은 학교보건의 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보건교육이 없으면 학교보건은 어렵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건강을 자신이 지켜서 사회의 훌륭한 건강 사회인이 되려면 가장 먼저 건강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건강이 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역시 보건 교육이 제일

빠른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보건 교육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기 보다는 거의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껏해야 포스터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에 있는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가, 특별 활동반인 위생반 학생들에게 패드나 도표를 보여 주거나 하는 것이 고작이다. 더구나 전체 학생에게 보건교육할 기회는 극히 드물어 특별한 날에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계몽방송이 고작이다.

보건교육의 방법에는 :

1) 개인접촉방법

- ① 가정 방문
- ② 소집상담
- ③ 외래상담
- ④ 전화상담
- ⑤ 서신상담

2) 집단지도방법

- ① 강의
- ② Group Discussion
- ③ 심포지움
- ④ Panel Discussion
- ⑤ Demonstration

3) 매체이용방법

- ① 대중매체
전파매체, 인쇄매체
- ② 보조자료
전동기계, 유인자료, 교육자료 등의 여러가지

가 있으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집단지도방법의 하나인 강의를 가장 효과적인 보건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했지만 학교에서 학생과 양호교사는 다른 과목교사보다도 학생과의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강한 학생을 대할 기회가 적다. 양호교사는 아픈 학생이나 허약한 학생들과의 접촉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한 학생의 건강상담이나 월만한 인간관계가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이것은 보건교육도 교육하는 사람이나 피교육자 사이에 Rapport가 형성되어야만 충분한 효과도 있고 질병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건강관찰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2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교실이 보건교육의 장소로 적합할 것 같다. 현재는 양호교사가 교실에서 학생을 접한다는 일은 거의 없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도 「보건교육」이라는 시간이 있어 양호교사가 학생들과 더불어 충분한 시간을 가져 공부하고 연구하는 양호교사로서의 발전을 바라고 싶다.

또 학생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는 동안에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들이 필요한 Health Teaching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학생들의 Health need를 파악하면 알찬 학교보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39페이지에서 계속>

의 健康을 維持하는 面에서의 當番活動指導 等に 徹底를 期하여야 한다.

7. 食事하는 過程에서 偏食하는 兒童을 早期 發見하고 그런 兒童에 對하여는 그 原因을 調査하여 배제하는데 家庭과 協力를 求하고 不知不識間에 그 食品에 適應되도록 指導하여야 한다.

8. 食事뒤에는 充分한 休養指導가 이루어져야

한다.

9. 給食時間은 다른 教育場面에서 볼 수 없는 兒童들의 個性의 側面이나 生活態度 等に 對하여 알 수 있는 機會가 되는 것이다. 愛情이 담긴 觀察로 兒童들의 生活全般에 對한 指導上의 資料를 얻어 日常教育指導에 反映시키도록 해야 한다.